

北 의대생의 인생역전...마사지숍으로 '성공신화' 쓰기



제1부-희망 찾기

마사지 가게 창업 박정민씨

인민·중·고교 반장 농친적 없어
회전 칠판 등 발명품만 100여개
의사 아버지 권유에 의대 입학
군 생활중 중국 갔다 도망자 전략
상하이서 여행사·컴퓨터업체 운영

2008년 직원들 데리고 남한 입성
광주에 정착했지만 일용직 전전
의대생 경력 살려 물리치료사 취직
노하우 살려 발 마사지 가게 창업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태어난 박정민(44)씨는 자신만의 기술로 현재까지 수많은 단골을 만들어 7년째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성공한 창업자다.

그는 인민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는 동안 내내 반장을 놓친 적이 없었다. 뛰어난 언변으로 항상 소년단 위원을 도맡아 했고, 자연스럽게 앞장서서 아이들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했다. '남보다 한보 앞장서 가야한다'는 아버지의 말씀의 영향이 컸던 덕분이다.

공부를 잘했던 박씨는 학창시절 회전하는 칠판을 최초로 발명해 함흥시에서 3등을 차지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온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사계절 커피 등 발명품이 100개도 넘는다.

그는 사실 우주에 관심이 많아 천문학자의 꿈을 가지고 물리, 화학 등을 공부하는 공대에 입학할 원했으나 의대 교수님이었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의대로 진학한다.

하지만, 그는 외과학을 전공해 양 의학을 공부한 아버지와 달리 한의학 공부를 시작했다. 대학 시절 김일성이 죽고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자 정부에서는 대학생들을 공부시키지 않고 산으로 들로 보냈다. 도토리, 약초 등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침뿌리 같은 약초들은 말려서 다듬어 50kg씩 가져다 바치면 대학교 1년을 공부한 걸로 쳐준다던 것이었다.

공부를 제대로 채 시작하기도 전에 의대공부에 취미가 없었던 그는 리더기질을 발휘해 동기들 45명을 데리고 집단탈원을 냈다. 북한 내 제 1 전선인 군대에 지원한다는 내용의 탈원서를 낸 후 45명 중 42명이 군대에 입대하게 된다. 1996년 입대 후 6개월 동안의 신병훈련이 끝나면 군의관양성소에 또 6개월간 교육을 받는다. 그렇게 1년을 보내면 소위계급을 따고 선배들 밑에서 인턴생활 2년을 한다. 2년 동안 응급처치부터 실습까지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한다. 그는 군의관이 되고 한 생명이 자신의 손에 달렸다는 책임감을 느낀 후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그렇게 군대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 그는 변방 부대에서 일하는 한동기를 만나러 출장을 갔다. 그렇게 만난 친구는 그에게 중국에 한번 다녀와 볼 테냐는 제안을 했고 결국 제안에 넘어간 그는 중국으로 가게 된다. 그러던 중 친구와 술을 먹고는 북한으로 다시 들어오는 일정이 늦어지고 그로 인해 간첩으로 오해받아 죽을 뻔한 그는 그 길로



다시 중국으로 도망을 간다. 그렇게 도망 다니며 떠돌이 생활을 하다 여러 명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렇게 그는 상해에 정착한다. 상해에서 6년 반 동안 지내면서 여행가이드회사를 운영하는 동시에 컴퓨터를 수리하는 업체도 함께 운영하게 된다. 그러다가 2008년 1월, 그 직원들을 모두 데리고 남한으로 넘어오게 된다.

한국에 들어와 하나원에서 퇴소 후 광주에 온 첫 느낌은 실망과 불안함이었다. 하나원에서 다른 탈북민들과 지내다가 혼자 떨어져 광주에 오니 외

롭고 쓸쓸하기도 했다. 아무것도 없는 쓸렁한 집에 혼자 있을 때면 뒤 해먹고 싶었고 여기까지 왔는지 서럽고 막막했다. 처음에 그는 막노동도 해보고 안 해보 일 없이 여러 일을 해보았다. 북한의 조직사회체제에 길든 그는 광주에 와 혼자힘으로 일을 구하기가 제일 어려웠다고 한다. 누가 일을 소개해주는 사람 없이 스스로 찾아보고 구해야 하는 점이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의대생이었던 그는 전공을 살려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만의

지식과 기술을 발휘해 발 건강을 위한 마사지 가게를 열었다. 발로 다스리는 건강을 만들고자 창업을 한 그는 어엿한 사장님이 되어 현재 도수치료와 교정요법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는 "내가 강조할 것은 '열심히 꾸준히 거짓 없게 노력하면 된다'는 것밖에 없다"며 "중요한 것은 결국 초심을 잃지 않고 거만해 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고 전하며 다른 탈북자들의 창업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 ❶ 대출·세금·허가신청서...‘정보’가 힘
- ❷ 다단계 유혹 조심...금전거래 삼가야
- ❸ ‘일희일비’ 않는 마음가짐 가장 중요

탈북민들 위한 창업 조언

현재 치평동에서 발 건강을 위한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박정민(44)씨는 다른 탈북민들에게 창업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세 가지 조언을 했다.

첫째, 창업을 위해서는 무조건 뭐든지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창업을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대출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금리 소상공인 대출 전문 상담도 받아보고 창업지원 등에 대해 알아보면서 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탈북민들은 일반 국민과 달리 영업허가를 받기 어렵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알아본 후 허가신청서를 내야 하며 세금, 보험 등 차근차근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두 번째로 돈이 제일 중요하며 돈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장품, 다이어트 식품 등 단계를 주의하라고 말했으며 주식투자는 절대 금물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까운 사람일수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며 결국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이란 잘될 때가 있고 잘 안될 때가 있으므로 한순간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면 성공이 찾아온다고 했다. 또한, 사람이 재산이라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니 거만해지지 말고 사람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남한에서는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서류 단계부터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내가 조금이나마 취업보다는 창업을 택하는 탈북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탈북 청소년 남한보다 평균키 5cm 작아

3명중 1명 "건강상태 안좋다"...병원보다 약국 더 많이 찾아

탈북민들은 남한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왜소했다. 청소년들을 비교하면 키는 5cm가량 작고, 몸무게는 8kg가량 가벼웠다. 광주·전남지역 탈북민들은 건강상태에 대해 3명 중 1명꼴로 '좋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남북하나재단의 '2014 전라지역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에 사는 탈북민들의 평균 신장은 158cm, 전남 탈북민은 157.9cm였다. 몸무게는 각각 55kg과 56kg이었다. 이는 전국 탈북민 평균보다 키(158.7cm)는 작고, 몸무게(55.5kg)는 비슷했다.

한국인 평균(남성 171.7cm, 158.7cm·한국인 인체지수)보다 탈북민은 키가 남성의 경우 4.9cm, 여성은 3.5cm 더 작았다. 청소년들의 체형을 비교하면 이같은 현상을 뚜렷했다.

광주지역 탈북청소년 중 고교 남학생의 키는 평균 163.3cm, 여학생은 155.3cm였다. 몸무게는 남학생 51.8kg, 여학생 48.4kg이었다. 하지만 이보다 나이를 적은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은 평균 키 169.7cm, 몸무게 62.3kg였고, 여학생

은 키 159.8cm, 몸무게 54.4kg으로, 탈북 고교생들이 키는 5cm가량 작고, 몸무게는 남학생은 10.5kg, 여학생은 6kg 덜 나갔다.

광주·전남 탈북민 3명 중 1명(광주 33.7%, 전남 36.3%)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인식은 여성(37.5%)이 남성(28.4%)보다 월등히 많았다.

지난 2주일동안 아팠던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10명 중 4명 이상(40.4%, 42.5%)은 아픈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들 중 광주 탈북민 절반 가량(49%)은 '10일 이상 아팠다'고 호소했다. 몸이 아팠지만 실제 병원에 입원하거나 집에 누워 지낸 탈북민은 광주의 경우 10명 중 3명(29.2%)에 불과했다. 이들이 입원(누워지낸 날 포함)한 날은 평균 7.5일이었다. 전남 탈북민은 이보다 3.7일 많은 11.2일이나 됐다.

광주·전남 탈북민 2명 중 1명(44.6%, 51.3%)은 2주일동안 치료를 받았거나 약을 복용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병원보다는 약국(한약국)을 더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욱기자 jwpark@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